

환경 보전

지구 환경 보호



클린에너지
(사진제공 : Getty Images)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일본의 일반(비산업) 쓰레기 양이 2008년 이후 4,000만 톤을 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쓰레기 처리장이 수년 내에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이옥신으로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5년 일반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4%.

2015년 일본의 폐지회수율은 81.3%였으며 폐지이용률(제지 생산에 사용된 폐지의 비율)은 64.3%였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폐지 재활용률이다.

1997년 4월에 포장재 재활용법의 실시로

제조업자에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과 유리 병의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었다. 가정에서 폐기하는 이 포장재는 총 일반 쓰레기 무게의 20-30%를 차지하지만 총 부피로는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법은 이전에는 세금으로 충당하였던 쓰레기 처리 비용을 회사와 소비자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누어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비자가 포장재를 폐기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수취장소에서 분류해야 하며 제조업자는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들을 가져가게 된다. 2007년 4월부터 시작하여 종이와 플라스틱 포장도 이 법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일본의 가정에서 폐기하는 전자제품은 거의 대부분 매립지에 매립된다. 그러한 매립지

폐기물의 양을 감소하기 위해 특정 가전제품 재활용법이 1998년에 실행되었다.

환경 보호 운동

서방국가의 환경보호 단체들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고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일본에도 그와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다. 일본에서 가장 큰 단체는 일본 야생조류협회인데 40,000명의 회원이 있다. 기업회원을 포함하면 세계자연보존기금 일본위원회의 회원 수도 43,000명이며 일본자연보존협회의 회원은 24,000명이다. 일본에는 5,000개 이상의 작은 환경보호단체가 있다. 풀 뿌리와 같은 작은 노력도 도움이 되므로 회원 수가 작은 이러한 단체들이 미래에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NGO(비정부 기구)도 해외에서 활동적이다.

특정 지역(환경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의 비용을 조금씩 함께 분담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의 출현과 같은 전국적인 트러스트 운동 또한 전개되고 있다. 그러한 토지는 그 트러스트에 기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추세는 시레토코, 훗카이도 및 덴진자키, 와카야마현의 초기의 핵심적인 운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자연보호는 숲이나 늪지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의 녹지에도 적용되고 있다. 환경 친화제품, 재료 및 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위해 민간단체와 기업, 지방단체 및 환경청(현재의 환경성)은 1996년 2월에 이러한 제품의 구매 장려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과 용역의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구매지침을 발표하였다.

각 지역사회회의 자치단체는 에너지 보존 및 재활용과 같은 환경을 고려한 지역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지역으로 선정된 가고시마현의 야쿠시마섬은 주방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폐식용유를 자동차의 연료로재활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고 환경에 대해 연구하도록 돕기 위해, 1995년 6월 정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주니어 에코 클럽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였다. 학생들의 독자적인 활동으로는 수상 생물을 관찰하고 별자리를 관찰하며 빈 캔을 재활용하는 것 외에도, 행정 기관의 지원을 얻어 국내 교류 에코 활동들을 한다. 2016년 현재, 1,918개 단체에서 약 111,347 명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환경을 위한 협력

일본의 ODA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환경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수자원 관리, 하수도 서비스, 쓰레기 처리 및 재난 방지, 삼림 보호 및 대기 및 수질 오염 물질의 방지와 같은 환경 오염 대책이 속한다. 에너지 보존과 새로운 에너지 기술 제공은 일본이 세계 환경을 위해 협력하는 주요 부분이다. 1997년 정부가 발표한 21세기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에 따라, 일본은 많은 환경 협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동아시아에 산성비 감시 설비를 건설하였다. 상호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지구 보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일본은 또한 유엔환경프로그램(UNEP),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및 유엔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다양한 국제 조직의 주요 지원 국가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덴진자키 국립자연환경보전지역

일본의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와카야마현 다나베만 덴진자키의 환경보전 대책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사진제공 : 덴진자키의 자연을 소중히하는 모임)

ODA 삼림 프로젝트 (사진제공 : JICA)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삼림의 식목과 재생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 사회 인식에도 공헌하고 있다. 일본 최대 종합상사의 하나인 미쓰비시상사는 말레이시아와 브라질에서 열대림 재생실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열대림은 벌채에 의해 한 번 파괴되면, 강한 비로 표토가 유출해 버린다. 자연을 재생하는 데에는 300~500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미야와키 아키라 요코하마 국립대학 명예 교수의 이론에 근거하면, 식수 방법에 의해 단기간에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많은 기업과 제지 생산 회사들이 해외 조림사업에 활발하게 기여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를 지원한다. 2019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에서 개발도상국에서의 폐기물 관리를 지원하는 ‘마린 이니셔티브(Marine Initiative)’ 선언을 하였다. 이것은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완전히 없애자는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의 일환이다.



에코 투어 (사진제공 : 미쓰비시)



페트병 재활용

지역주민은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된 쓰레기장까지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가져간다. 페트병은 거기에서 수거되어 재활용된다.